

# 갑작스런 선로변경 지시로 사고 초래 가능성

### “교육 댐 변경 지점 덕양역... 운행 중 울춘역 변경 지시”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고’ 코레일 내부서 의혹 제기 생존 기관사 2차례 자살 시도... 배경 놓고 의문 가중

갑작스런 운행 지시 변경이 무궁화호 탈선 사고를 불렀다는 의혹이 코레일 내부에서 제기됐다.

사고 직전 순천역에서 새롭게 투입된 기관사들에게 운행 교육을 하면서 선로변경 지점을 ‘덕양역’으로 했다가, 10여분 뒤 운행 도중 갑자기 ‘울춘역’으로 앞당겼다는 것이다. 열차를 운행했던 기관사는 터널 구간에서 선로변경 지시를 받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생존 기관사가 사고 이후 입원 중인 병원에서 최소 2차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의문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여수 울춘역 전방 200m지점에서 사고가 난 무궁화호(1517호)를 몰았던 기관사 정모(57)씨 등 2명의 기관사는 열차 탑승 전 선로변경 구간을 덕양역으로 지시받았다는 주장이 코레일 내부에서 제기됐다.

기관사들은 열차 탑승 전 기관차승무사업소(순천역)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선로 변경구간 등 운행시 주의할 사항을 교육받는데 이 과정에서 울춘역이 아닌 덕양역으로 고지됐다는 것이다. 선로 변경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선로가 급격한 곡선 형태로 바뀌게 되면 통상 속도로 달리더라도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탈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전산으로 내려지는 운전명령에도 선로 변경구간은 덕양역으로 돼 있었고, 공사구간을 알리는 작업지시서에도 실제 공사가 이뤄진 곳(순천~성산 궤도보수공사)이 아닌 성산~울춘으로 표기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기된 의혹처럼 기관사의 열차 투입 전 선로변경 구간에 대한 고지와 실제가 차이나다면, 무전을 이용한 관제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탈선 사고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경찰이 기관사 정씨를 조사한 결과 당시 관제는 덕양역에서 무전으로 이뤄졌는데, 선로 변경구간을 알리는 무전 송수신 당시 해당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 적절한 교신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정씨는 사고 초기 경찰 조사에서 “터널을 지날 때 ‘지지직’ 거러 무전 교신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사고 직전 울춘역 앞에서 선로 변경구간을 알리는 불이 들어

#### ■ 열차사고 개요



오기 전까지 선로 변경 구간을 덕양역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전남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기관사 정씨는 26일 새벽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고 이후 최소 2차례 이상 자살 및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코레일 내부에서는 갑작스런 선로변경 구간 변경 이유에 대해 열차 지연을 거론하고 있다.

당시 서을 용산역을 21일 밤 10시45분 출발한 열차는 순천역까지 오는 동안 5분이 늦어졌고 선로를 바꾸느라 1분을 소모, 정시보다 6분 지연된 상황이었다. 그러는 사이 철도교통관리센터(서울 구로)에서 역주행(순천~울춘~덕양) 구간을 순

전~울춘으로 앞당겨 열차 지연을 단 몇 분이라도 줄이려고 순천역에서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 쪽지 형식으로 기관사 1명에게 변경 내용을 알렸다는 것이다.

무궁화호의 경우 6분이 지연되더라도 ‘지연사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정시도 작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 선로변경 지점을 앞당겼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코레일 측은 “자살시도는 맞지만 그 배경은 알 수 없고,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제기된 의혹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경찰대 관계자도 “수사 중 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1980년 광주는 외롭지 않았다

5·18재단 내달 2일~6월16일 해외연대활동 기록물 전시



5·18광주민중항쟁을 보도한 1980년 5월22일자 뉴욕타임즈(위)와 한독친선회가 ‘광주를 지지하는 시위를 열자’고 독일 교민들에게 보낸 초청장. (5·18기념재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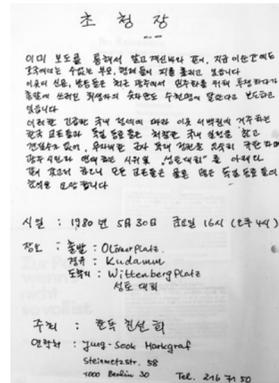
“지금 이 순간 조국에서는 수많은 형제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시민들과 연대하는 시위를 80년 5월 30일 오후 4시 쿠담(kudamm)에서 개최하오니 많은 독일 교포들께서 참석해주세요.”

1980년 5월 30일 독일 중심가에서 광주 시민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열자는 내용의 초청장을 비롯해 당시 고립된 광주에 손을 내밀었던 세계 곳곳 교포들의 활동 기록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5·18 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외 각지에서 진행된 집회 등 해외 연대활동 기록물을 전시한다고 26일 밝혔다. ‘5·18 그 위대한 연대’라는 이름의 전시회는 다음달 2일부터 6월 16일까지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다.

독일·미국·일본의 연대활동, 문화를 통한 해외교포와의 교류활동, 다시 부르고 싶은 ‘임을 위한 행진곡’ 등 5개 섹션으로 구성된 전시에는 100여점의 사진, 언론보도, 편지 등이 선보인다.

독일 전시물로는 5·18 직후 교포사회가 시위를 조직하며 주고 받은 초청장, 시위 언론보도와 사진 등이 공개된다. 5·18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씨의 영상보도물



을 사진으로 감무리한 작품도 전시된다. 미주 한인사회의 활동물로는 당시 광주의 참혹한 실상을 교포사회에 알리고 신군부를 규탄한 새로운 기록물이 마련된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날 미국 방문을 통해 5·18 관련 해외교포의 첫 집회가 시카고에서 열린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신문기사, 모임 회계자료, 동포대회 홍보물 등을 확보했다. 일본의 연대 활동으로는 전주교 일본 정의평화위원회가 기증한 5·18 기록물이 소개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코레일 전남본부장 등 5명 직위해제

코레일이 여수 무궁화호 탈선사고 책임을 물어한광덕 코레일 전남본부장을 직위해제했다.

코레일은 25일 한 본부장과 전남본부 소속 기관차승무사업소장(기관사) 담당지도팀장, 기관사 정모(56)씨, 본사 여객운영기술담당 등 5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과 관리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추후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남부철도사업단 소속 지용태 처장을 전남본부장 대행으로 임명, 사고 수습을 하도록 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장성서 뺑소니 사망사고

### 전직 경찰 13시간만에 자수

마을에 사는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전직 경찰관이 사고 13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장성경찰은 26일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전직 경찰관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43분께 장성군 장성읍 한 마을 앞 도로

에서 자신이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로 경운기를 들이받아 같은 마을에 사는 B(74)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운기가 옆으로 넘어지고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며 13시간만인 이날 오전 8시40분께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음주 여부를 측정했지만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며 “A씨가 묵비권을 행사 중”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국제사기 논란’ 검토 자문위원 2명 징역형 확정

### 대법원, 대표이사는 징유 선고

국제사기 논란 끝에 무산된 광주시 문화콘텐츠 한미합작투자사업(일명 겸코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빼돌린 자문위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사업을 맡았던 투자법인 대표이사는 사실상 최고의사결정권자인 광주시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유예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겸코 자문위원 장모(44)씨와 박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겸코 대표이사 김모(59)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징역유예 5년을 확정했다.

겸코 사건은 광주시가 3차원 입체영상 변환기술을 미국 업체인 K2AM으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등 모두 106억 원을 날린 사건이다. 자문위원 장씨와 박씨는 2011년 4~5월

광주시와 합작을 추진하던 미국측 사업자 K2AM으로부터 “광주 측 내부정보를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5만달러(한화 5억1900여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K2AM측에 이메일을 보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먼저 요구했다. 광주시의 회의 내용과 협상방향을 알려주고 협상전략을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광주시의 의사결정을 돕는 입장에서 미국 측에 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기망행위가 성공하는 데 일조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대표이사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K2AM의 기술력·자금력 등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업준비자금 명목으로 600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또 미국 기술테스트가 성공할 경우 지급할 용도로 K2AM에 70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출금 안전장치인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채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물건이 왜 자꾸 사라지지? ...잡고보니 ‘전과 2범우’



○대형 마트를 돌며 미리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옷가지를 담은 뒤 계산하지 않은 수법으로 물건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들미.

○2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 전과 2범인 이모(여·45)씨는 지난 8일 정오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대형마트 내 갑모(여·48)씨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17만원짜리 상의를 하나를 담아가

산대를 빠져나온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90만원여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

○물건이 자꾸 사라진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트 주재 CCTV를 통해 옷가게와 그가 들고 온 차량을 특정한 뒤 이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여죄까지 밝혀낸 이후 절도 혐의로 입건.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모델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리모델링 공사비 4억 별도
- 리모델링 후 연 4억원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여수, 대지매매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5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 숙박 (무인텔 / 콘도)

###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11억 2500만원 낙찰
-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가장임차인 / 허위유치권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오천경매

- ▶ 비법 배우면서 투자하실분!
- ▶ 특수물건과 NPL만 전문취급
- ▶ 교육비 1,200만원
- ▶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